

동성환의원은 2008년 개업 이래 ‘환자’를 ‘동행하는 사람’으로 여기고, 40여년 ‘소통의 문화’를 실천하며 ‘동성환’의 가치를 실현해온 동성환의원입니다.

<동성환의원 3.0 판 1: 소통의 문화 실천 방안>

동성환의원 3.0판 2022년 ‘동성환’의 ‘동행하는 사람’으로 여기고, 40여년 ‘소통의 문화’를 실천하며 ‘동성환’의 가치를 실현해온 동성환의원입니다. - 소통의 문화 -

2022. 03. 28. 동성환

소통의 문화 실천 방안, 동성환의원 ‘동성환’의 소통 문화

동성환의원 3.0판 2022년 ‘동성환’의 ‘동행하는 사람’으로 여기고, 40여년 ‘소통의 문화’를 실천하며 ‘동성환’의 가치를 실현해온 동성환의원입니다. - 소통의 문화 -

동성환의원 3.0판 2022년 ‘동성환’의 ‘동행하는 사람’으로 여기고, 40여년 ‘소통의 문화’를 실천하며 ‘동성환’의 가치를 실현해온 동성환의원입니다. - 소통의 문화 -



동성환의원



동성환의원

동성환의원 3.0판 2022년 ‘동성환’의 ‘동행하는 사람’으로 여기고, 40여년 ‘소통의 문화’를 실천하며 ‘동성환’의 가치를 실현해온 동성환의원입니다. - 소통의 문화 -

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

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 “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” ‘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’



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



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

“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 1은 ... 2는 ...”

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 ‘이들은 자신의 가게를 꾸민다.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가게마다 특색이 있다.’



이들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함께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“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.” 라고 하며,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“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.”

이들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함께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

이/이름 (이름 / Park SuHi)

이들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함께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이 4km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